

1. 종교다원주의 배경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52호
8월 1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전국연합 출범

진평연, 진정한 자유와 평등 이루는 건강한 나라 만든다



전국 17개 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성서화운동본부, 불교, 천주교 등 한국 주요 종교계와 시민단체, 법률가 등이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지난 7월 24일(금)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부 창립식은 창립준비위원회 홍호수 목사의 사회로 창립준비위원장 전용대 변호사의 인사말, 김계춘 신부(가톨릭 원로)와 이여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 이어, 창립준비위원장 김원평 교수가 정관과 조직 초안을 발표하고 제양규 교수가 진평연의 활동계획을 소개했다.

제양규 교수는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를 붕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도가 1~2년 만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교회 뿐 아니라 종교계가 전면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1부 마지막에는 김영현 원장(기독교학술원)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발표한 후, 홍영태 목사(이론성분화물위한국민연합 운영위원장)가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진평연의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여론을 선동한 뉴스앤조이 등의 가짜 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만성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차별금지법의 위헌성과 실무상 위헌성,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명지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이상현 교수(송실대 법대), 전문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차례로 발표했다.

[성명서]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7월 24일 498개 단체가 연합하여 창립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은,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 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의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모든 힘을 모아 끝까지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정의당의 법안은 포함해서 지금까지 발의된 대부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 양성애, 다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여 도박자, 마약자 등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차별받아서는 안되지만, 사회적 피해를 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조차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이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사회학적 성(gender)에 대한 성별(gender) 정체성에는 여성, 남성 외 50여 개나 되는 제3의 성을 포함하며, 이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태어났던부터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을 기반으로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고, 50여 개의 다양한 성별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다.

현행 헌법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양성으로 나누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 외 다양한 가족 및 가구의 형태를 인정함으로써, 동성간의 결합이나 다자간의 결합 등을 정당한 혼인으로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헌법 개정 논의 가운데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을 통해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현행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시도이다. 또 이러한 시도는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저술신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성애 성교육을 반대할 권리가 없다. 성적 정체성을 정립하기는 중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남성과 여성 등의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쳤을 때,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급증한다는 해외 사례가 최근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입법으로 인해 지금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 이것을 따라하려고 하지는 안 된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반대와 비판조차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는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2020년 7월 24일 출범하는 진평연은 자녀 출신이 가능한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고 동성간의 결합, 다자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

2020년 7월 24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대구·경북서도 “차별금지법…가짜 인권, 가짜 평등 악법”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14일(화) CE인권위원회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대구경북다문화대교로세우기학부모연합회 외 42개 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CE인권위원회(정순진 위원장, 전상욱 사무국장)는 “이번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역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양성평등 헌법 제36조 1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예수님의 초림(初臨)과 재림(再臨)’



조용목 목사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14)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의 초림과 재림이 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아는 지식만큼 귀하고 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지식은 비할 데 없이 보배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탐구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그 신비함과 놀라움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연고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은 에워 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본체에 대한 해결책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대속의 은혜’라는 해결책으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죄인을 대속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속하는 일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방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참으로 슬프고 탄식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구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하는 일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또한 성경에 밝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사탄을 처벌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시모하고 고대하며 아울러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징조를 알고자 합니다.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 혹은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특히 세계대전처럼 여러 나라들이 동맹하고 연합하여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 24:6~8)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람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마 24:9~12)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 기록되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때 이는 봉함한 것이 열린 것이며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날 최첨단 교통통신 정보교환 수단들은 100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봉함한 것이 개봉되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만할 것이며,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비례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에 교회는 많지도 참된 교회가 적고, 신자는 많지도 참된 신자가 드물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경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전북 교계 “차별금지법은 국민 역차별”

폭풍우 속 500여 명 모여 강력 항의

나쁜차별금지법반대 전북추진위원회(대표회장 박재신 목사)가 지난 7월 22일(수) 오후 전주시 효자로 전북도청 앞에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창조 질서에 의한 가치관과 대한민국 법이 부정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나쁜차별금지법반대 전북추진위원회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역적 사유로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개별 차별금지법이 약 20여 개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므로 궁극적으로 동

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나진권 의원은 “도의원 22명이 차별금지법 건의안에 반대했다는 것은 도민과 국민의 뜻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비단다”고 했다.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는 이상규 목사(전북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진수만 장로(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 배진용 목사(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 이병진 목사(공평사회시민모임 대표), 고영완 목사(군산장로교회연합회장), 주진경 고문(전북학부모임), 최정호 목사(전북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 팀장), 김성수 목사(영주시기독교연합회장), 이인희 목사(성경교회), 문영복 목사(원주군목회자협의회 증경회장) 등이 발언했다.

독도에서 나라와 교회 위해 기도

한교연,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 될 것 다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지난 7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대한민국 독도에서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한교연은 금번 기도회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와 천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 될 것을 다짐했다.

한교연 임원과 상임 특별위원장 등 32명이 참가한 이번 독도구국기도회는 강원도 동해·울릉도·독도를 오가며 2박3일간 진행되었으며, 특히 8일 오후에 독도에 도착해 태극기와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높이 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하라하셔서 동해에서 울릉도까지



3시간, 다시 독도까지 2시간, 5시간동안 배를 타고 국토의 시작점인 독도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독도 입도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무장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한국교회는 예배와 교회의 본질을 속히 회복함

으로 나라와 민족에 빛과 소금이 되고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달라"고 기도했다.

독도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울릉도로 돌아온 한교연 독도방문단은 8일(수) 오후 7시에 울릉도 대동호텔에서 수요예배를 겸한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평신도지도자협, '코로나 이렇게 합시다'

코로나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강무영 장로/이하 한평협)는 지난 7월 10일(금) 오전 11시 한국기독교교회관 강당에서 '코로나 이렇게 합시다!!'라는 주제로 전략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장덕 총장(송호대학교)은 '코로나 4차 산업시대에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코로나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 잃어버린 영적상황을 깨우쳐주고 있다"고 말하고, "이 코로나를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통해 창세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철 대표회장(한국기독교적장신교연합회)은 '연합하여 선교의 기회로 삼읍시다'



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코로나 이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알 수 없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진노이자 세계를 향한 경고이다. 교회가 살면 코로나도 물러간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영 목사(전기총 사무총장 회장)는 '지역교회가 협력해서 이겨냅시다'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멀리 와있다. 한국교회는 교회와 신앙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부름 받고 기도할 때 코로나는 물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략보고를 한 강무영 대표회장은 '이렇게 코로나를 이겨냅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부름있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며 모든 교회는 지침을 지켜 사회에 분을 보여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 회원 교단장들 임시총회 소집, 공식 요청

31개 교단장, 준비위원장에 홍재철 증경 대표회장 만장일치 추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이하 한기총) 소속 32개 교단장들이 임시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홍재철 증경대표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한기총 정성과 기류가 한층 빠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기총 소속 32개 교단장들은 지난 7월 21일(화) 용산컨벤션센터에서 임시총회준비

위원회를 결성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우근 직무대행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키로 했다.

준비위원장에 추대된 홍재철 증경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교단 및 선교단체를 대신해 그간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한기총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 "한기총 주인은 한국교회와 회원 교단 및 선교 단체들이며 지난 모든 하물을 용서하고 화합해서 한기총을 지키고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모임에는 24개 회원 교단장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7교단장은 위임 총 31개 교단장들이 뜻을 모으고 이우근 직무대행에게 강력하게 임시총회를 열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 전문가들은 "회원교단 및 선교단체 1/3 이상이 임시총회를 요구할 경우 직무대행이 법원에 요청해 열 수 있다"며 "이미 법적인 요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참석자 교단장들은 이날 부위원장 공동회장인 김원남 목사, 정학재 목사, 서기 황덕광 목사, 회계 손덕 목사, 언론홍보 및 간사 김인기 목사를 각각 선임했다.

대한성서공회, 르완다에 성경 기증

창조교회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후원



지난 7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는 창조교회(홍기영 목사)의 후원으로 르완다에 <르완다에 성경> 13618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홍기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르완다에 보내는 키아르완다에 성경이 르완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위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공회 권의현 사장은 "창조교회는 2015년 쿠바에 스페인어 성경을, 2019년에는 미얀마 조진에 성경을 후원해주신 데 이어서 오늘 르완다에 키아르완다에 성경을 보내고자 하는데 창조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교회라고 확신한다."고 하며 창조교회

에 감사를 전했다.

르완다는 투치족과 후투족의 종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1994년 '르완다 대학살'로 오랜 기간 고통받은 국가이다. 대학살 100여 일 동안 100만 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친구, 이웃들이 죽는 모습을 목격하는 비극적 상황을 겪었다.

이 사건으로 르완다 전체는 황폐화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르완다 사람들은 대학살로 인한 정신적 충격, 가족 간의 분괴, 빈곤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르완다성서공회는 르완다 사람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당면한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경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르완다성서공회는 성경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잃은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기해자와 생존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결대학교 국가별 해외취업 온라인특강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성결대학교 재학생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방학생활 해외취업편-국가별" 온라인 특강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영어권 및 유럽, 일본, 중국 및 동남아 취업 트렌드 및 지원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의는 zoom을 통한 실시간 강의와 강의 녹화본을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일정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호응도가 높았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영어권 47명, 일어난 42명, 중국권 46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제공되는 강의 역시 50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는 등 높은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남산혜 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해외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취업에 대한 꿈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복음화협의회, 성령의 권능받아 증인 되길...

부흥 특강 및 제주 기독교 역사 탐방



민족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김진태 목사)가 지난 7월 5일(주)부터 8일(수)까지 제주 불루와아리조트에서 '성령으로 권능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자'라는 주제로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김진태 목사(삼재전 목사, 한정수 목사 외에 이귀범 목사, 김은원

목사, 김숙희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에 위기 속에서 더욱 급급한 성령의 은혜에 대해 설교했다.

총재 김진태 목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얼마나 열심하 했는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무조건 열심하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고

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수련회 중 낮시간에는 방주교회 대성교회, 순례자의교회 비블리야성경사물원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제주의 기독교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민족복음화협의회는 1977년 '77민족복음화대성회' 이후 신현규 목사를 중심으로 17개 교단 300여명의 목회자들이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모였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밝히며 새롭게 조직했다.

민족복음화협의회는 이번 제주 하계성회를 시작으로 8.15 75주년 구국기도회, 성령콘서트7080, 나라사랑이집기도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부부소통 챌린지로 코로나블루 슬기롭게

2020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슬기로운 부부생활 챌린지'

서울YWCA와 유한킴벌리는 7월 17일(금)부터 9월 5일(토)까지 '2020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온라인편을 개최한다.

'슬기로운 부부생활 챌린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참여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의 핵심이 소통과 존중을 통한 평등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기획했다.

2009년에 시작한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이하 신혼부부학교)는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변함없는 가치를 기반으로, 신혼부부들이 전통적인 가족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건강한 가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돕기 위해 12번째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YWCA와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책임활동을 지속하는 유한킴벌리가 협업하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 가치는 소통과 존중을 통한 평등임을 신혼부부학교를 통해 확산하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

슬기로운 부부생활 챌린지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YWCA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혼부부학교에서 개발한 부부소통지수 테스트, 9월에 개최 예정인 신혼부부학교이론편과 실천편의 예고편 영상을 보고 퀴즈 풀기, 부부 소통을 실천하는 인증샷 올리기 등이다.

참여자 중 300여명에게는 유한킴벌리의 출산육아용품과 청소용품 등을 선물로 증정하고 전단계 참여자 중 5명에게는 온라인 교육 참여를 돕는 커브드PC모니터를 증정할 계획이다.

챌린지 참여자 모두는 9월에 열린 신혼부부학교에 우선 선별될 수 있다.

노인복지협의회, 제232회 조찬기도회

지도자들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특별기도

한국노인복지선교협의회(대표회장 조지현 목사)는 지난 7월 10일(금) 오전 7시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 엘피스홀에서 제232회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기도회는 박중선 목사(한기총 사무

총장) 사회로 김원삼 목사(경원교회)의 대표기도, 김미희 권사의 성경봉독,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명예회장)의 요 13:34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나라의 마지막 소원과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순으로 진행했다.



한창영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 공동회장)는 각계 지도자를 위한 특별기도시간을 통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종규 목사(예정위신 증경총회장의 축도 후 열린 2부 주제발표 및 토의시간은 대표회장 조지현 목사 사회로 김이랑 사인의 시낭송, 고대식 장로의 하모니카 특송, 이형춘 목사(세·한국기독교학술재단 이사장)의 기도, 신극범 교수(전 교원대학교 총장)의 특강 순으로 진행했다.

계속해 조지현 목사의 성시낭송, 이만의 회장(전 환경부장관)의 격려사, 김동철 선교사(KBS텔레비전 드라마 공연, 조지현 목사의 내빈소개 후 김중석 목사(한민족목도포럼 대표)의 오찬기도에 이어 오찬시간을 가졌다.

종강감사에배...“고난에도 감사”

부산신학교

예하성부산신학교(학장 한명집 목사)는 지난 7월 16일(목) 오후 7시 2020년 1학기 종강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태주 목사의 찬양인도 후 교무처장 서미곤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박용호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고영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고 목사는 롬 8:12-17 말씀을 본문으로 ‘아바 아버지’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후사로서 앞으로 받을 상속을 생각하



며 고난을 감사함으로 헤쳐 나아가자”고 선포하였다.

이어 김현주 전도사의 헌금기도, 학장 한명집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7월 7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주찬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재무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안병섭 목사(순복음장성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요 9:13-38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그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나면서 맹인 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떠 구원을 받았다.”라며 “그가 메시아를 찾았자 할 때 ‘내가 그나!’고 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를



도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고 영안이 열려 성령이 함께하는 목회를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헌금기도와 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회무처리를 하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나라와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 다짐

강원동지방회

김순기 전도사 목사임직예배

강원동지방회(회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7월 15일(수) 삼척궁촌중앙교회에서 김순기 전도사에 대한 목사임직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남지방회 회장단과 임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드린 임직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이성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경기남지방회 서경오 목사의 대표기도, 강원동지방회장 박순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대하 32: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자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므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될 것을 당부하고 사역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안수위원장 박순용 목사의 집례로 서여, 안수기도와 공포, 임직증서 수여, 임직 패증경, 엄기소 목사(증경회장, 전원교회)의 권면, 경기남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축사, 임직자 자녀들의 특송, 정주영 목사(회계, 강릉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임직자 김순기 목사의 인사말, 정석현 목사(경기남지방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치고 함께 오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성별대 목사와 김순기 목사는 해변가 지역의 특성상 우상숭배가 극심한 지역이기에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를 당부했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7월 10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에 위치한 창대교회(담임 박석현 전도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서기 서정영 목사의 찬양인도 후 총무 서경오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남순 목사의 기도, 김효신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사모님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직전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정 목사는 창 28:10-19 말씀을 본문으로 ‘별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름은 외산촌이 사는 먼 하란까지 가는 도중에 별개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다.”라며 “오늘 창립하는 창대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규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오직 하나



님을 바라보며 이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아픔과 함께하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믿고, 또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열쇠를 주신 것처럼 전도사님도 예수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 날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당부하였다.

이어 회계 표현자 목사의 헌금과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공포 및 취임패 증정 후, 증경회장 최병일 목사의 축사, 증경회장 김

남수 목사의 권면, 박석현 전도사(창대교회)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박전도사는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을 다해 영혼구원에 힘쓰겠다고 전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였다.

이어 서경오 목사의 광고와 지방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창대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민찬으로 감사의 교제를 나누고, 인근 카페로 모여 정부규제로 인한 예배 모임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토의한 후 모든 일정을 마쳤다.

청정자연 태백을 복음의 마을로

태백시기독교연합회 제39차 정기총회

회장 표창근 목사, 부회장 진장길 목사 선임

태백시기독교연합회는 최근 태백목양교회(담임 표창근 목사)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표창근 목사를 선임하는 한편 차기 연합회를 이끌어갈 부회장에 진장길 목사를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류배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백창곤 목사의 대표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표창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표 목사는 전 4:12 말씀을 본문으로 ‘세 겹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정직한 자연 속의 귀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힘써 합하여 감당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는 지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동광 목사의 광고 후 김종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곧바로 회장 김홍렬 목사(통리교회)의 인도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등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전원위원에 의해 신규임원을 교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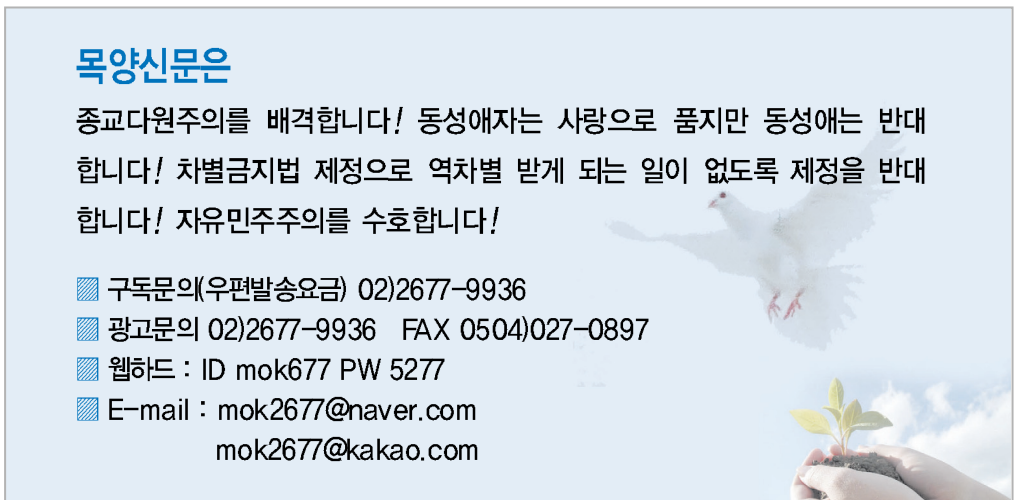
이번에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표창근 목사, 부회장 진장길 목사, 이종민 목사, 백창곤 목사, 총무 류배형 목사, 협동총무 최상규 목사, 송인도 목사, 이동광 목사, 박찬철 목사, 서기 김성호 목사, 회계 황병운 목사, 부회계 나우철 목사.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mok2677@kakao.com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 제7차 나라와 민족 위한 조찬 기도회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2020년 제7차 나라와 민족과 복음화를 위한 조찬 기도회가 지난 7월 23일(목) 오전 7시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소재한 생명샘동전교회(박귀환 목사)에서 개최했다.

1부 예배에는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삼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먼저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진 목사는 환영사에서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회에 많은 회원 여러분과 선후배 동역자들이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금 임박한 총선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됨으로 제정 반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기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세영 정로(후원회)의 대표기도와 상임회장 김수홍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 목사는 수 5:13-15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본문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기에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누구의 편이냐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길 기도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본부장 이두영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보고회 및 공지사항으로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이명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충남기독교총연합회(임원 장현원 목사)의 사업보고와 결의사항으로 1)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정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정부의 QR코드 사용 지시를 거부하고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 보관하기로 한다. 2)세종시에서 개최될 임시 조율중) 한교총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한국교회 기도회에 참가자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한다. 3)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강력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교회들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연합회와 함께 일간신문에 차별금지법 반대 교회명과 목회

자 성명을 게재하는데 동참한다. 4)한교총과 연합하여 충남도내 학교에 건전한 성교육 강사를 소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아가페바른인권회(위원장 황기식 목사)의 보고에서는 아산시 연합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에 적극 참여하며 학생 인권조례 및 동성애 반대를 위한 LED 차광구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3부 순서로 기도회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한 후 주체별 기도회가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1)민족복음화와 아산시 성시화를 위하여 조이철 목사(상임회장), 2)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위하여 황기식 목사(상임위원), 3)아산시 지도자와 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이광로 목사(지도위원), 4)중국어한배령(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위하여 구지범 목사(지도위원), 5)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유현희 목사(감사)의 순으로 주체별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모든 순서를 마친 참석자들은 생명샘동전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조찬을 함께 하며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 생명의 말씀 ■



황 준 익 목사

· 주안 감리교원로원 원로

1.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라고 했습니다.

오스가 물문은 일반 역사와 구속 역사가 있다고 믿었는데 일반 역사는 사람이 쓰지만 구속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고 믿었

습니다.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인간의 관심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2. 사명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40년의 광야에서 특별수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첫째 수업은, 외로움의 훈련이었습니다. 애굽 왕조를 버리고 싹새, 고독, 외로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만사를 붙잡은 자요, 하나님을 놓친 자가 만사를 놓친 자입니다.

둘째 수업은,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세월을 무작정 광야에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도의 자리에서 커다란 인내와 온유를 배우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성숙한 성품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수업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바뀌어 집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 3장에서 모세는 다섯 가지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성령의 불을 받을, 하나님의 인도 축복 받을, 능력의 지팡이 받을, 새 생명 받을, 신명기 마지막 장 노보산(메스가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입니다.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

는 자가 선견자요, 역사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선지자요,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방향을 잡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목회 철학은 자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바라보고 참았으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정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여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죄악의 홍해, 세상의 홍해).

3. 사명자의 자세

첫째, 훈련입니다. 개도 말도 훈련에 따라 군견도 되고 군마도 됩니다. 군인도 훈련에 따라 계급이 붙여집니다. 6주 훈련을 통해 이등병, 6개월 훈련으로 하사, 2년 4년 훈련으로 소위의 계급이 붙습니다.

신앙 사상 타협하지 않기 위해, 말씀에 훈련되지 않도록,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신앙은 받는 단계, 성장 단계, 훈련 단계, 하나님이 쓰는 단계가 있습니다.

둘째, 명령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일체 제함(호렙산), 주의 손에 붙잡힘으로 능력의 지팡이, 구름기둥 불기둥, 무장한 자: 진리의 말씀무장, 보혈의 능력 무장, 예수의 사랑무장.

셋째, 역사입니다.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홍해의 갈라짐(죄악의 홍해, 질병의 홍해, 가난의 홍해), 치료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5:26에 “나 여호와이는 치료의 하나님” 즉 심령치료, 육신치료, 생활치료입니다. 생수가 터집니다.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축복의 생수.

넷째,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 정직한 마음과 좌로나 우로나 치루치지 않는 마음.

다섯 번째, 사명 감당 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개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 정

예정함동 사무총장에 이은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홍준 목사) 이은철 초대 사무총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7월 23일(목)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이 사무총장은 “교단과 교회에 남아있는 서열문화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유대인의 세계관을 교단 행정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배우 박상원 세 번째 사진전



국민배우 박상원 씨가 생애 세 번째 사진전 ‘A SCENE’을 지난 7월 31일(금)까지 서울 강남구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일공동체 월드비전 등과 긴급구호를 다니며 만난 아프리카 아이들의 사진 등이 전시되었으며 수익금은 전액 다일공동체와 국립암센터에 기부된다.

하도균 교수, '목회 패러다임'



기독교대학성경교회(총회장 한기제 목사)가 지난 7월 24일(금) 오후 ‘뉴노멀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하도균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과)가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복음 전도’에 대해 강의했다. 하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짚어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슬람선교학교 성황리 종료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FIM국제선교교회(이사장 천환, 대표 유해석)의 이슬람선교학교인 텐시브 일정이 은혜중에 마쳤다. 총신대선교대학원 김성욱 교수, FIM대표 유해석 박사, 칼빈대학교 강사 장미숙 박사와 마르투스 출판사 대표 이동훈 목사 등 4명의 강사들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FIM 소속 선교사들의 사역 소개와 간증으로 감동을 전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정권과 권력의 위기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지만, 정권은 국민에 의해서 탄생되며,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권력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다.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으로 몰아 붙여 촛불로 탄생된 정권이다. 전 정권을 탄핵한 근거가 합당하다면, 현 정권은 그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현 정권이 표명했던 정책과 주장들에 대하여는 성과를 보여야 했다. 전 정권에서 무너졌었다는 공정·공평·정의의 실현이었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성과가 아니라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 정권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에 현 정권과 여권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자신들에게 기회를 준 국민들을 의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더 나아가서 왜 이 정권을 선택했는지를 후회한다는 이들이 눈에 띄

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한 예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사리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로 묻어 두려고 하고, 알려진 바대로 성추행이 원인이라면 비서 여성에게 진실된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과 위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간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현 정부의 주장과 인권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목소리를 높여 회화자 중심주의를 주장한 이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알려진 대로 인권변호사이며, 시민운동가이고, 페미니스트를 적극 지지하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하였다. 그런 박 전 시장이 수년간 여비서에게 폭행 짓을 했다는 것을 때의지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외부 인사를 통하여 사실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아직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은 사건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8년 인회정 총남자사에 의한 ‘비투 사건’과 올해 오거돈 부산시장에 의한 ‘비투 사건’이 있어 사회적으로 시끄러울 때에도 그러한 행동을 멈추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오죽하면 진보논객 진중권 씨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만지당’이라고 하였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6·25 전쟁의 영웅이며, 국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국가·정부적 예우이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고 백선엽 장군은 우리나라를 공산화의 위기, 백척간두에서 구한 분명한 영웅이다.

그런데 유해(遺骸)를 서울 국립현충원에 정중히 모셔야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것도 ‘친일’을 볼모로 옥신각신하였다. 참으로 민망하고 불행사나운 추태이다. 오히려 미국 쪽에서 더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의 공로를 추켜세웠다.

지난 15일 정례식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는 공식적인 추모 메시지가 논쟁조차 없었다. 전쟁 영웅에게 이

렇듯 출대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부정이며, 부끄러운 국가와 정부의 민낯을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망신이다.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 후에도 국가의 영웅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주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안장식 후 다음날인 16일, 고 백선엽 장군의 정보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넣었다. 왜 백선엽 장군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란 말인가?

이들의 주장은 과거 고 백선엽 장군이 만주의 간도특설대에 장교로 있으면서, 일본 군인장에서 독립군을 소탕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몰 역사이요, 역사왜곡이다. 고 백 장군이 근무할 1943년 당시에는 만주에 독립군은 없었다는 것이 정실이다.

1921년 6월, 소련 공산군대가 3,900여한인 무장 독립군들을 포위, 사살한 사건, 이른바 자유시 참변(自由市慘變) 이후 독립군은 만주에서 지척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 1931년 만보산 사건 이후 1937년에서 1943년 일제의 패망 때까지 일본군 최정예부대 100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만주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사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한우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향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리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워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통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 (운동전후손전지/수향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사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서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렌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렌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사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서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발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사이버터, 마가데미아넛오일등

⑨ 젤케어 림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삼권분립 훼손”

살롱나비, 제헌절 기념 성명 통해 법치주의 정신 국정 운영 주문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롱나비)은 제헌절 기념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삼권분립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헌절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남은 국정에 소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살롱나비는 지난 7월 15일(수) 성명을 통해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1948년 제헌절의 헌법 공포 위에서 수립된 것으로 북한의 인민공화국과는 다르며 오늘날 문재인 정권 아래 역사 지우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살롱나비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집권 세력으로서 도리어 법률 위반 행위를 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북핵 폐기보다는 연방제 지향의 유악한 대북 정책 등에 있어서 제헌 헌법 정신을 위배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향하여 국정을 끌고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으며 헌법정신에 준수하여 나라를 다스려달라는 지식인들의 요구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검찰의 독립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거로 집권한 세력도 지만하게 될 때 민주 독재로 변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제 “차기 대통령선거일까지 1년 10개월 시한이 주어져 있는 임시 권력을 위임받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여태까지 정책에 대한 수정해주기를 충심으로 제인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문재인 정부 들어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헌절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남은 국정 소임을 다해주시 바란다.

2020년 제72회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재조명이 새롭게 대두된다. 지난날 진보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과의 대화, 외교, 경제 정책 시행 시 국정 운영 기조에는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의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 이들 앞서 간 진보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70년 적폐 청산, 헌법 총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정 시도, 북한 정권 미화 위주의 역사교과서 수정, 북핵 폐기보다는 연방제 지향의 유악한 대북 정책 등에 있어서 제헌 헌법 정신을 위배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향하여 국정을 끌고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으며 헌법정신에 준수하여 나라를 다스려달라는 지식인들의 요구가 크다. 이에 살롱나비는 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전명하는 바이다.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1948년 제헌절의 헌법 공포 위에서 수립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다가 1945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제2차세계대전 승리로 해방을 맞았다.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북한 지역에서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의 지원 아래 1946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먼저 수립하고 독자적인 국가체제를 갖추어 나가 한반도 단일 정부수립을 저지하였다. 그러자 불가피하게 자유민주지도

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엔감시 하에 자유선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자유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48년 제헌국회는 해방 후 일어난 남로당의 총력 박헌영의 좌익 분열 책동, 4.3 제주 사태 등 혼란을 극복하고 남한에서 유엔 인정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하였고, 자유민주헌법을 공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였다.

2.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북한의 인민공화국과는 다르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골자로 하여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모체이다. 대한민국은 이 헌법에 의하여 지난 70여년 동안 비록 여러 번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전쟁 후 국민 소득 87달러의 세계 빈국에서 기호군등과 자유경제의 원칙 아래 미국으로부터 선진과학기술 도입과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으로 2017년 국민소득 3만달러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주체 독재사회인 북한과는 대조된다. 북한은 인민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사회 전체가 수용소 군도이며, 주체 경제로 대량 아사자가 속출하고 경제적으로 파탄되었다. 이러한 북한사회와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

3. 오늘날 문재인 정권 아래 역사지우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은 1980년대 운동권 세력이다. 그 가운데 주시파 세력들이 근 40년 전 남아빠진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오늘날 자유대한국을 이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의 지식인 레이몽 아롱과 오스트리아의 지식인 칼 포퍼 등이 언급한 바 같이, 젊은 시절에는 정의감에 불탄 나머지 일시적으로는 마르크스적 사회주의 환상에 빠질 수 있으나 바로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1989년 동구 사회주의 정권이 스스로 붕괴된 후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읽지 못한 주시파들이 국정을 이끌고 있으니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파탄된 북한체제와 묶어보려는 인위적인 동양의 시도, 낮은 연방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요 자기들의 독단적 이념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 시대에 뒤진 환상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4. 문재인 정부 들어와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행정, 국회, 사법부가 서로 견제 균형을 하는 국가가 삼권분립의 국가다. 자유민주국가는 권력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 상호 견제·감시토록 하는 권력 분립 시스템이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선출된 권력(대통령과 의회)’이 서로 견제토록 하고, 임명된 권력(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독립성을 부여해 ‘선출된 권력’의 독단(獨斷)을 억제하도록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정치시스템은 퇴보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4.15선거에서 야당을 이기기 위하여 제1 야당 참여 없이 선거법을 멋대로 뜯고쳤다. 그리고 4.15 총선에 대한 전례 없는 선거부정 논란과 더불어 수십건의 선거무효소송건이 법원에 올라와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선례를 뒤엎었다. 대통령은 여야를 총괄하는 국가의 수반이다. 국가 원수는 자기 편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대법관, 헌법재판소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임명 권한을 내세워 대법관·헌법재판소 판사를 제 편 일색(一色)으로 채웠다. 이러한 국가 운

영은 사실상 헌법 파괴로 앞으로의 국정은 심히 우려된다.

5. 집권 세력은 모범을 보이기능 법률 위반 행위를 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집권 위정자들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가 통치자라도 법률에 위반했으면 사법의 칼날을 받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까지도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하명까지 하였고 이를 전 국민이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현 청와대 수석들이 법률 위반을 했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이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수사팀을 해체하는 법 위배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여당은 4.15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졌다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장을 독점한 21대 국회로 개원되었다. 이는 70여 년 된 자유민주정치의 모습이 아니고 독재회로로 퇴보하고 있다. 선진 정치일수록 헌법과 법률 못지않게 관례(慣例)와 선례의 존중이 중요하다.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원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한다. 영국 법 어디에도 ‘다수당 대표를 총리로 지명한다’는 조항은 없다. 성문법에 없다 해서 여왕은 아무나 총리로 지명하지 않고 관례를 존중한다. 이것이 영국의 민주정지다. 관례와 선례를 깰아뭉개는 것은 헌법과 법률 파괴와 맞먹는 민주정치의 파괴다. 한국의 여당은 우물 안의 개구리같은 사고에서 벗어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례를 알아야 한다. 지구촌 시대에 세계의 눈이 K-외교, K-Pop을 보듯이 한국의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6.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검찰의 독립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권 탄핵의 정치적 대모(代母)라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이미 3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고 본인도 징역형을 살고 나와 끝난 사건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개별적 사건 지휘에 대하여 수족을 자를 뿐 아니라 장관의 권한에 벗어나는 지시들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긴급회의는 이른바 검인 유죄의혹에 대한 사건을 놓고 추미에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법무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자의적으로 해서 검찰의 독립체계가 건터날 수 없다. 추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청법 8조를 들고 나왔다. 이 조항은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로 돼 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이 사건 저사건에 이러하랴 저러하도록 나서라는 뜻이 아니다. 가급적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검찰청법 12조 2항에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로 되어 있어, 수사지휘권자는 검찰총장이라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7. 선거로 집권한 세력도 지만하게 될 때 민주 독재로 변모한다.

현 민주당 정권의 그동안 3년간의 국정운영은 소독주도성장, 탈원전, 반기업, 아파트 값 잡기, 유악한 대북 협상, 북한의 핵 폐기 정책 등에 있어서 실패로 드러났다. 현집권 여당은 총선에서 패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범 세계적으로 다가온 국가 위기 속에서 경합이 풍부한 의료진의 도움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전국민 재난 퍼주기 4.15 총

칼럼	이용희 교수 // 에스디기도운동 대표
----	----------------------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공홀히 여기라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전 11:1)

성경은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후에 우리가 물 위에 던진 식물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진다는 뜻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답례가 오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돌아올 것이 없으니 마치 물 위에 식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않는다.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훗날 보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식물을 돌려주는 이는 누구일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잠 19:17)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잠 14:31)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가까이 나눌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만는 우리가 한바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팔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관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이라”(행 4:32-35)

내가 능력이 많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소유가 많을지라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선에서 기대와는 달리 압승하였다. 투표율에서는 49%대 41%로 근소한 차이였으나 의석수로는 177석대 103석으로 거대한 여당이 되었다. 그런데 거대여당은 여태까지 야당에게 돌아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하고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지방의회까지 독식하고 있다. 그러하여 의회독재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과 상호견제라는 민주정치에 걸맞은 의회 운영이 아니다.

8.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 9개월 기간을 자신의 야만 헌법 정신을 구현해주시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4·15 총선을 통해 ‘절대 권력’으로 등장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가 마주친 두 번째 ‘절대 권력’이다. 1972년 군부 독재 정권이 랭카 국회 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유신(維新) 체제’란 모습으로 등장했다. 야전과 다른 점은 선거를 통했다는 것과 선거의 환경이 코로나 팬데믹이란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것이다. 독일 국민은 1932년 총선을 통해 ‘히틀러당(黨)’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스 파판드레우 정권,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는 5년이라는 한시적인 정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없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성경적 공동체의 모습이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가난한 자들과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통용했다.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약자를 보듬어야 한다.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도우며 최선을 다해 배려해야 한다.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은 동시에 장애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섬길 때 이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2006년, 독일의 한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공동체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고, 아서서 식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방문한 나 하나를 위해서 영어 통역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나는 사전에 계획에 없었던 방문자였고, 통역을 세울 경우 20분이면 될 강연이 40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약 50명 정도 되던 독일 사람들이 아이아에서 방문한 한 사람을 위하여 가까이 배려하는 그 사람이 지금도 내 기억에 감동으로 남아 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그 이후 나는 한국 땅에서 외국인들을 만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빗тин 마음을 갖고 대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 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38-40)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은 곧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다. “그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시 68:5)

령과 의원들과 관료들은 국민들의 봉사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3년 넘어 봉사해왔고, 이제 차기 대통령선거일까지 1년 10개월 시한이 주어져 있는 임시 권력을 위임받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여태까지 정책에 대한 수정해주기를 충심으로 제인한다.

9. 한국교회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국정을 수행하도록 기도하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점기에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민족정신을 일깨웠고, 기독교 국국 정신으로 상해임시정부 수립과 임시헌법제정 작성에 임정요인으로 참여하였고, 제헌헌법 제정에도 이승만, 이윤영 등 독실한 기독교 인사 중심으로 자유정신과 시장 경제 정신을 헌법정신에 넣었다. 한국교회는 6.25전쟁에서도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오늘날 다시 이념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1948년 공포된 헌법정신이 국가운영에 구현되도록 감시하며 국가위정자들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도록 기도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

목양時事

이효상 원장 // 근대문화진흥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인공지능로봇, 인간의 조력자인가? 인간을 대신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을 반영하고 대신할 정도의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다. 일명, ‘로봇’이다. 로봇의 영역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며 인공지능을 내재한 알파고와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긴 이후 인간의 조력자인가, 인간을 대체하는가 라는 문제가 현대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특히 코로나 19이후 접촉이나 대면을 꺼리는 비대면 시대에 로봇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은 그 역할을 더 커지고 있다.

‘로봇’이라고 하면 굳은 일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의 이미지나, 대화를 나누며 말동무가 되어주는 친구 같은 이미지를 연상한다. 영화<터미네이터>에 나오는 T-600과

같이 인류를 공격하는 침략자의 이미지 등을 가지고 있다.

1920년 카렐 차페의 희곡인 <로섬의 만능 로봇 RUR>에서 처음 등장했다. ‘로봇’이란 단어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오락적 존재나 살아있는 금속 인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 희곡이나 후에 로봇은 금속 인형을 넘어 사회에 귀속된 기계 노동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1962년 미국의 유니 메이선사가 최초의 산업용 로봇인 유니 매트를 생산해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 부품공장에 설치하며 로봇 산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일본의 가와사키 사나 스웨덴의 아베베사 등이 로봇 시장

에 뛰어들며 로봇산업의 규모는 커져갔다. 커져가는 규모와 더불어 기술의 수준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그럼 현재 로봇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인간의 이익을 위해 태어나는 기계의 발전은 ‘지분주의’라는 틀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로봇 기술은 상상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따라서 몇 십 년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일들을 현재의 로봇들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수술로봇’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손이 정교하다고는 하지만 그날의 컨디션이나 긴장 정도에 따라 정교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정교성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로봇은 프로그램에 입력받은 값만큼 정확히 움직이므로 정교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수술로봇이 개발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술로봇인 ‘다빈치’는 오차 범위 0.1밀리미터 이내로 수술 부위를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재활로봇’도 등장했다. 재활로봇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재활로봇은 전쟁에 의해 발전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수많은 장애인들로 인해 나타지게 된 재활로봇이나 장애의

수요 덕분에 충분한 연구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현재 인공지능이 내장되어있는 로봇 의족과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자팔찌 등이 개발되었다.

인간과 로봇, 공생할 수 있을까. 로봇을 통하여 1초만에 자동결제가 된다. 이처럼 현재 로봇은 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며 인간을 도와주고 있다.

인간을 위해 만든 기술이 인간을 위한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 문명의 진보는 인간에게 득이 되기도 하지만 득이 될 수도 있다.

공상과학(SF)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로 어떻게 드러날까. 사실 로봇이란 기술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도 수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를 인공적으로 구현하며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능 발전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가정 하에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아니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인공지능(AI)’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창 2:7)라고 설명한다. ‘생령’이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living being - 표준세번역성경우리말성경) 또는 산 영혼(living soul-kjv)을정역성경을 말한다. ‘살아있는 영혼’이란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에 로봇이 소유할 수 없고 로봇과 달리 구별되어진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영역이 있음을 보여준다.

알파고의 처음부터 비독한 너무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가. 결국 이 엄청난 로봇의 존재에 미래를 맡길 수 있느냐 영혼이 없는 쇠덩어리라면 볼 것인가. 논자는 ‘인공지능로봇’은 인간의 조력자인가, 아니면 인간을 뛰어넘는 대체품인가. ‘로봇’이라는 기계가 못하는 것 인간만이 가진 본래의 저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자체가 대안이 아닐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1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0. 8. 28(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0. 9. 03(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0. 9. 24(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0. 8. 28(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1. 2. 1(월)~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고 문
자 문 위 원
대 표 회 장
본 부 장
상 임 회 장
공 동 회 장

지 도 위 원

부 회 장

사 무 총 장

상 임 총 무

후원회 회장

후 원 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손 혁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정병환 목사, 김성권 목사, 광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주섭 목사, 김의중 목사, 김청환 목사, 엄태일 목사
장헌원 목사, 고영기 목사, 김주섭 목사, 이재두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이기언 목사, 안덕근 목사, 유현희 목사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서기 최순식 목사
회계 광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정수희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화 목사, 오세완 목사, 최문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형준 목사, 전병학 목사,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미숙 목사
한상문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후 원 계 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 문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YONSEI NANUM CLINIC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CTS기독교TV·주다산교회 〈교육선교 동역 협약식〉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와 주다산교회(담임 권순웅 목사)가 기독교대한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22일(수) 주다산교회에서 ‘교육선교 동역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서 권순웅牧사는 “다음세대 교육은 단순히 교육적 측면을 뛰어넘어 선교의 일환”이라며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독교대한학교를 세우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감경철 회장은 “CTS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데 선도적인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다산교회에 기독교대한학교를 세우는데 CTS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 말했다.

협약 이후, 내년 3월 기독교대한학교 교교를 목표로 하는 주다산교회는 CTS다음세대지원센터에서 학교



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CTS다음세대지원센터는 학생 모집과 우수 교사

지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도우며 교회에서 대안 학교를 설립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성폭력법 잡은 의인’ 싱어송라이터 에이톤, 장기기증 서약

“생명을 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본부)는 지난 7월 15일(수) 오후 2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싱어송라이터 에이톤 씨의 장기기증 서약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이톤은 지난 2019년 12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 남성을 업어치기로 제압하고 경찰에 인도를 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 ‘2019년을 빛낸 의인’에 선정돼 2020년 새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해돋이 산행을 함께하는 등의 행보가 화제를 모았다. 성폭력법을 잡으며 여성을 구한 에이톤이 이번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 섰다.

7월 15일, 오후 2시 본부 사무실에서 싱어송라이

터 에이톤 씨는 사후 각막기증과 뇌사 시 장기기증을 약속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에이톤 씨는 “아렸을 때부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는 부모님을 지켜보며 지라왔다”며 “부모님의 영향으로 나누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나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번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 계기를 말하면서는 “평소 제 인생 모토가 ‘알만 보고 간다.’여서, 제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바로 해야만 한다”며 “장기기증 서약도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후 재능나눔을 통해 장기기증 홍보활동에 앞장 서고 싶다는 에이톤 씨는 이날 사랑의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앞으로 제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 분들을 기억하고, 장기기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로하는 홍보대사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에이톤은 2017년 발표된 길귀봉구 히트곡 ‘이별’을 작사, 작곡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박지영, 세븐틴 도겸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다. 최근 카카오톡 산하 프로듀서 레이블 플렉스 엠과 전속계약 체결해 앞으로 다양한 방송활동과 음반활동을 통해 대중들을 만날 예정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택 이사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희망의 소식을 들려준 에이톤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뛰어난 재능으로 생명의 나눔의 주인공들을 기억하고 알리는 데 앞장 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홍보팀 02-363-3992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8일(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전문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번 발의가 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그 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점이 많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처럼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이다.

첫째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하지만 한법 제3조 1항에 곧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한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 법안은 상위법인 한법을 위배하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는 잘못된 법안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반사회적이며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동성애를 비롯한 다자성에, 근친상간, 수간 등 가장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며, 이를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악법이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성 인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으로 자신이 성을 인지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악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 인지 교육을 각 지자체별로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공무원들과 국가기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 인지교육을 받게 되면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갈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정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거, 사생활, 직업, 양심, 종교, 언론, 집회, 예술 등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한법의 내용과 상충되며 한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등을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치료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에 빠지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함으로 보건적 피해를 모르는 동성애자들은 계속 동성애에 빠지고 에이즈환자는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탈 동성애단체들이 탈 동성애를 돕고 싶어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해방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반가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반윤리적인 성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외에도 차별금지법안 제3조에는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또한 제2, 44, 49조에는 동성에 등을 강력히 옹호 조정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기관화 하는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 도덕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장애, 나이,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20개 가까이 제정되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1948년 7월 12일 개정된 한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조찬기도회, 인천시여미니기도회, 인천시보수교단연합회를 비롯한 6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7월 8일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보수교단총연합회, 인천광역시조찬기도회, 인천광역시여미니기도회, 인천법시민연합, 시민법민무지개, 올바른성문화부모모임, 양성평등국민위원회, 올바른인권서문지, 올바른가치시민연합, 건전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회 60여개 시민단체 일동

신간 안내

크리스천 엄마의 독서 수업



저자는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인간지능의 근본이 ‘트리비움의 힘’에 있다고 말한다. 트리비움이란 ‘수용-생각-표현’을 뜻하는 라틴어로,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능력이며,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이 반드시 회복하고 키워야 할 능력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목사로서 20여 년간, 기독교교육현장에서 사역해 온 저자는 부모와 자녀들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던 독서법과 독서지도법의 핵심을 이 책에 담았다. 독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자녀에게 독서를 가르치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당장, 엄마 자신부터도 쉽게 열어보지 못하는 책장, 이제『크리스천 엄마의 독서 수업』을 통해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자상하고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 가능한 지침을 담았다.

저자 : 장대은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 발행일 : 2020-07-20 | (145*210)mm 296p | 판매가 : 16,000원

가장 작은 자를 위한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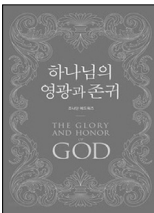


‘칠드런 액트, 가버나움, 우리들, 헬프, 보호와 녹양, 코러스, 스포트라이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줄무늬 피자’, 읽은 소년, 우리집, 폴란드로 간 아이들, 메이지가 알고 있었던 일. 책 속에 등장하는 12편의 영화들을 통해 저자는 독자들을 무장해제 시킨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함께 꿈꾸지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풀어내는 두 저자의 목소리는 거창하거나 유난스럽지 않다. 50년 차 NGO 활동가인 저자가 ‘보호’라는 이름을 들고 여자라고 착각했다가 민망해지는 장면은 내 안의 인권감수성을 점검해보게 한다. 두 저자는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닌,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책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느낌을 이야기한다.

저자 : 김인숙, 이선영 | 출판사 : 국민북스

발행일 : 2020-07-27 | (140*200)mm 152p | 판매가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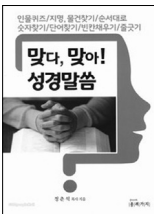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이 책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미출간 설교 원고 20편을 담았다. 미국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지, 그것이 인간의 죄를 강조하는 설교이자 복음적 메시지이며 극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설교였다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로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기쁨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에드워즈의 모든 저술의 거대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까지 에드워즈에게서 배운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압도되어 오늘 우리의 부흥을 갈망하며 준비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역자 : 조나단 에드워즈, 편집자: 마이클 D. 맥밀런/오광민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0-07-27 | (150*225)mm 512p | 판매가 : 25,000원

맞다, 맞아! 성경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받아 드리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지도를 갖고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 가다보면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믿음의 반석위에 올라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인물을 찾아보고, 지명을 찾고, 물건을 찾고, 숫자와 단어를 찾아보는 방법을 통하여 숨겨진 보물을 찾고,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 줄을 그어가면서 “맞다, 맞아! 그 말씀이야”라고 외치고 싶도록 하고 싶다. 조금씩 성경에 손때를 묻히며, 말씀을 찾아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맞추่อม 더 가까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감이 나타난다.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저자가

저자 : 정춘석 | 출판사 : 종라가치 | 발행일 : 2020-07-22 | (152*224)mm 224p | 판매가 : 13,000원

화제의 신간

한국인과 유대인의 유사점 107가지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

이번에 출간한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 (부제: 한국인과 유대인의 유사점 107가지)은 전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해왔다.

왜 하나님은 아시아권 중에서 한국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었던 필리핀교회, 중국교회 및 일본교회보다 한국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왜 많은 이들이 20세기부터 한국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교회성장학적 측면에서 교회가 급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 영적 이스라엘 백성(갈 3:6-9)이 많아졌기 때문이고, 둘째, 사역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2가지는 역사적으로 유럽교회, 영국교회 및 미국과 캐나다교회도 매우 많이 했다.

그렇다면 2가지 증거 이외에 다른 증거들, 즉 상관관계적 측면에서 한국 민족과 유대 민족과의 유사점은 없는가? 왜냐하면 한국인을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칭하려면 유대인과의 유사점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본사에서 한국과 한국인과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유사점들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했다. 그 결과 1) 지리와 역사적 측면에서 17가지, 2) 가족의 가치와 제도 측면에서 35가지, 3) 교육과 문화의 측면에서 16가지, 4) 종교적 측면에서 16가지 그리고 5) 경제발전 측면에서 23가지 등 총 107가지의 유사점을 발견했다. 특이한 점은 유사점들 대부분이 오직 한국과

한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두 민족 모두 가장 작은 나라이면서 초강대국에 둘러싸였다. 수많은 침략과 처절한 수모를 당했지만 현재까지 생존했다.

두 나라 모두 1948년에 건국했다. 건국이념이 신본주의 국가다. 짧은 기간에 세계적 인 나라가 되었다. 이스라엘이나 한국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 번영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아방나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등등, 이것은 두 나라와 두 국민의 상관관계가 그만큼 많다(같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선민의 조건)에 합격했던 것처럼, 한국과 한국인도 상대적으로나마 그 기준에 합격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사점이 많은가?

저자 : 현웅수
발행처 : 도서출판 셰마
발행일 : 2020년 7월 1일
쪽 수 : 426 쪽
판형 : 신국판
가 격 : 25,000원
문의 : 도서출판 셰마 02-3662-6567
Email : shemaeq@naver.com



희망친구 기아대책, 한톨청소년봉사

100명 선발해 3개월간 비대면 방식 봉사단 활동 진행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이 ‘한톨청소년봉사단’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8월 16일까지며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총 100명의 단원을 선발해 9월부터 11월까지 봉사단 활동을 진행하고 12월에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톨청소년봉사단(이하 한청봉)은 ‘한 톨의 밀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정신으로 세상에 필요한 글로벌 리더십을 육성하는 기아대책의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기아대책은 2013년부터 매년 한청봉 단원을 선발해 발대식을 갖고 국내외 봉사를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에 8기 단원을 맞이하는 한청봉은 지금까지 1022명의 청소년 단원과 함께 봉사활동과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도 실행해왔다.

해외에서는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을 직접 찾아 교육지원과 시설보수, 문화교류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영화감독 추상미, 뮤지컬배우 양준모, 웹툰작가

까마득 등 각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감사로 참여하는 ‘비전특강’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를 듣고 자아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단원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동안 국내외 한지에서 활동을 진행해오던 한청봉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사회공헌 플랫폼 ‘같이 가치’를 활용해 모금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에 모집되는 8기 단원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선발된 단원들은 온라인으로 비전특강을 수강하고 디지털 기반 시민참여플랫폼을 활용해 자신만의 소셜 캠페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각자 유엔(UN)이 지정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중 한 가지를 주제로 정하고 스스로 도출한 해결방안을 강의안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도 주어진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김인수 한톨청소년봉사단장은 “이전에 볼 수 없던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번 한톨청소년봉사단원 모집을 준비했다”며 “새로운 단원들과 세 계시민으로서의 더 좋은 영향력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석대 LINC+사업단 ‘덕분에 챌린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가치 창출 위해 노력할 것”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 LINC+사업단(단장 한정수)은 지난 7월 21일(화) 교내 일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고마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 LINC+사업단(단장 이규만)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백석대학교 LINC+사업단은 소속 교직원 및 재학생이 캠페인에 참여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백석대 한정수 LINC+사업단장은 “코로나19 극복에 함께주시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

다”며 “코로나19 종식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인 K-방역(예방성, 투명성, 시민의식의 결합)에 적극 동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석대학교 LINC+사업단은 다음 주자로 세명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강신호)을 지목했다.

한편,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담은 수어,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한 뒤 #덕분에챌린지,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하는 캠페인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비 올 때 오히려 전도가 잘된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울 때 대구에 소재한 교회는 더 힘들어졌다. 어려움 속에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 봐야했기에, 기도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길을 나섰다.

나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남양주였다.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인천으로 가야하는 그 때 박영수 목사가 남양주에 있다는 생각에 교회로 찾았다. 나는 성령님께 계속 물으며 이런 갑작스런 만남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하였다. 그 때 감동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지금의 이 만남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서 가족세트능력전도를 다시 하겠노라 약속하고 인천으로 출발하였다. 그때의 만남이 오늘까지 3주째 매주 금요일

가족세트전도를 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개척교회에 재정적 어려움은 있었고 광고가 되지 아니한 상황이라 다른 사람들은 없었지만 나를 전도자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면서 오늘까지 3주째 전도하였는데 구원받기로 한 심령들을 한 생명 두 생명 붙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다.

많은 생명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필요한 심령들을 붙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선택지와 불확직을 즉석에서 나누는 가족세트 능력전도의 소중함을 경험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같이 동참하는 주의 종들도 와서 되든 안되든 전도 실습을 한다면 앞으로 더 효과적인 세트전도가 되리라 믿는다.

오늘은 장마기간이라 어제부터 대구에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비 올 때 오히려 더 전도가 잘된다는 것을 내눈으로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존의 환경과 조건이 안 좋으면 전도가 안된다는 생각이 바뀌는 그런 기회도 되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는 세트전도가 이시대를 구할 하나님의 능력임도 발견하였다.

결국은 환경과 조건을 찾는 부정적인 생각이 영혼구원을 막는 원인이라는 것도 절감하였다. 중요한 것은 ‘하루면 된다! 나도 하면 된다!’는 것을 깊이 각인하는 전도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족세트전도 대구본부장
권배을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중독 예방과 치유 위해 적극 나설 것”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상임대표로 홍호수 교수 취임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상임대표에 홍호수 교수가 취임했다. 이와 관련해 운동본부는 14일 양천구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홍호수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중독예방’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거듭나고자 생각해 몸을 가짐에 했다”며 “하루 한끼만 먹고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며 하루에 2-5만보를 걸었고 거의 매일 산 정상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그렇게 16kg을 뺐다”며 “이 마음과 각오로 중독예방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리라는 기대감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특히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청소년 중독예방 운동을 해보자고 생각했다”며 “한국교회를 지키는 새로운 미래전략으로 중독예방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이와 함께 “중독없는 사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자”며 “한국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독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예방과 치유를 위한 활동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현재 한국 사회에는 도박, 알콜, 흡연, 마약, 게임, 성중독 등 다양한 중독현상들

이 발생되고 있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 불법도박문제, 마약중독, 게임중독, 성중독은 기존의 알콜과 흡연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우리 국민들과 지니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크나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콜마, 미혼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나선다

글로벌 뷰티웰스 기업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가 미혼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나선다.

한국콜마홀딩스(대표이사 김병목)와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는 지난 20일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서울 마포구 양화로 소재)에서 ‘미혼한부모가정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콜마홀딩스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미혼한부모가정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자립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콜마홀딩스는 기부금과 기부물품 등 총 3천만원 상당의 현물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해 미혼한부모가정에 지원하게 된다.

양사는 첫 번째 활동으로 ‘미혼한부모 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가칭)’ 지원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콜마홀딩스 직원들은 손소독제, 마스크, 선크림 등이 담긴 물품 100박스를 직접 포장해 홀트아동복지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이 100박스를 추가 제작해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콜마홀딩스 김병목 대표는 “미혼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추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김호현 회장은 “미혼한부모가정을 향한 한국콜마의 진심어린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 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 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심방 가는길

세상사람 보이는 것 찾아 나서나
전도자는 갈한 영혼 찾아 나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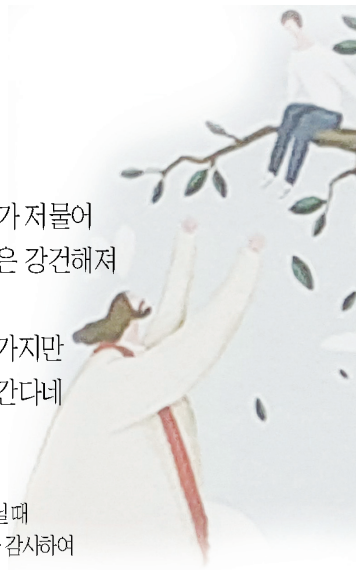
상처 받은 영혼 있나? 낙심하는 영혼 있나?
말씀 잡고 잘 자라나? 기도하며 승리 하나?

성령인도 따르는 길 생명 씨앗 뿌리는 길
한걸음에 기도하고 두 걸음에 찬양하며

어느새 돌고 오면 하루 해가 저물어
걸 사람 열여지고 속 사람은 강건해져

세상 사람 자신 위해 살아가지만
전도자는 주를 위해 살아 간다네

전도사님과 구역식구들 심방을 다닐때
영혼돌아보는 그 귀한일이 너무나 감사하여
충만한 마음을 글로 남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거부하는 위법”

시민단체들, 정의당사 앞 반대 집회

바른교회세움연합, 레인보우리턴즈,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등이 최근 국회의사당역 인근 정의당사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바른교회세움연합의 최영익 목사, FINET 미니스트리의 김영현 전도사, 다음세대학부모연합하브이 조우경 대표, 카이스트 트루스포럼의 김규열 청년, 탕트랜스젠더인 엄종모 청년,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의 박성재 변호사, 레인보우리턴즈의 염안섭 원장,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기본법’은 2011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이미 철회되었던 차별금지법안과 거의 모든 항목이 유사하다”며 “이는 발의 의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불평등한 ‘평등법’의 내용에는 크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매우 비이성적인 ‘평등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준다. 제2, 동성애, 페미니즘 등을 앞장서서 조정해왔던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교회와 학교 등의 공동체에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사용자가 파산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악법”이라며 “헌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여 ‘침권분립’의 헌법정신

에도 어긋나는 본질적 문제가 더 큰 반(反)국가적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둘째로, 차별금지법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와 다자성에, 수간 등의 변태적 성욕을 행하는 자에게 ‘교단의 한법’과 ‘교리’에 따라 치리를 할 경우 ‘성적지향, 성적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형사 처벌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목사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일은 시간 문제일 뿐더러, 현대교육의 시작이요 기반이 된, 기독교 건학이념의 역사적 명분 학교는 모두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추진하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반(反) 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것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황으로도 정상적인 국민은 그 목적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셋째로, 차별금지법은 일반적 사회에서도 평등과 자유, 인권이라는 단어로 위장하여 국민에게 ‘불평등한 차별’을 가하는 악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실상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빼앗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어, 예외적으로 최고 5배까지 배상 범위를 확장했다.

당연히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엄청나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헌법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정의당이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근본적 위

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결 의-

헌법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정의당이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근본적 위법이다.

종교개혁자이자, 존경받는 네덜란드의 정치가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한다.

“내 생애를 지배하는 단 한가지 소원이 있다.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성경과 피조물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국민의 양심에 새겨 넣어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신이다. 정확하고 건강한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자유롭게 가르치며 건강하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을 보기를 소망한다.

모든 국민과 한국 교회와 우리 청년들은 ‘현대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보수하는 것임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국민들과 한국교회는 국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참 자유와 참 인권을 수호하는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바른 가치를 훼손하는 정의당과 이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정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설

북한이 핵을 버려야 한다

진정한 평화를 말하려면 북한이 핵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북핵이 평화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북핵이 존재하는 한평화는 없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다. 정부는 현실은 외면하고 니콜로 평화와 외친다. 평화라는 카드를 내세우면 모든 게 일사천류다. 군부정부가 입맛에 맞게 평화만 내세우는 ‘정적군인’들이 득세하고 있다. 그들수록 군기강은 해이해지고 있다. 6·25 전쟁의 참전 경험을 저술한 페린바크 미군 중령은 저서 ‘이런 전쟁’ (This Kind of War, 1963)에서 “강이없는 군대는 패배할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불과 66년 전 월남의 패망에서 이를 똑똑히 보았다. 안보와 민족화합 이 두 명제는 통일을 위해 한 국가가 견지해야 가치이다. 진정한 민족화합을 이룰 통일을 위해 먼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분단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북의 비핵화는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홍수가 나면 당장 물에 휩쓸려 갈 뿐이다. 즉 종전선언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인식

차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동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나고, 대동강 매주와 우리 쌀을 버려 먹이고, 폭파열기도 가시기 전에, 1980년대 운동권의 민족해방론(민해론)은 분단이 독재와

불평등 등 모든 문제의 근원원인이라는 인식이다. 그들이 지금 집권세력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고, 안보와 남북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민족을 강조한다. 북한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변해해 주고 비난을 떨어 주려다 팩트체크도 서슴지 않는다. 4세기 로마의 군사전문가인 베게티우스는 지금까지도 군사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군사학논고에서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에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한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반일(反日)이라는 죽창 휘두르기에 이어 수도(首都) 천도(遷都)라는 국면전환을 필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안보와 국방을 다지는 것이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대비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보다 철저히 다지고, 우리의 무기체제와 군기강을 비롯해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한 국가의 생존과 영속 전략을 어서 속히 구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여호사벳을 침략했을 때 여호사벳은 즉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 유다의 백성과 함께 금식기도했다.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대하 20:1-19)라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요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나

최근 민간단체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하여 북한의 항의가 들어온 것을 기회(均衡)로, 우리 정부와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의 지자체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고 있다. 또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옹색한 여러 가지 법안을 들이대고 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왜 이런 법에 의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런 가운데 북한 지역에 지난 2006년부터 성경과 신앙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는 선교단체까지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그 대응이 지나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순교자의 소리’ 선교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성경을 보내다가 강원도 철원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공산권에 있는 숨은 기독교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것이 간첩행위란 말인가? 오히려 ‘주적’ (主敵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주적의 말에 꼼짝 못하고 놀아나는 것이 더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여기는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북한이 아니라,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이다. 정부의 원칙 없는 갑작스런 규제로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오히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울부짖었을까?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종교·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더러운 평화’를 역사와 후대(後代)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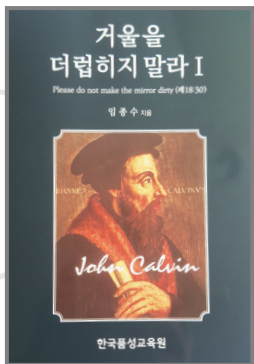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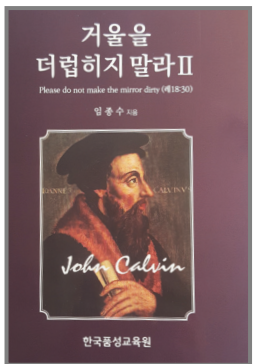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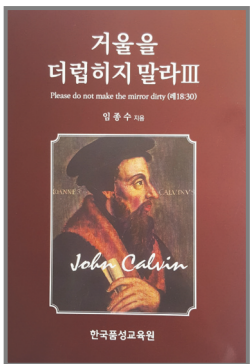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든 어떤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죄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자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 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